



경기주기
전망
2025년 4월

안정성 추구

지정학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도전 과제가
명확해지는 시기, 채권 시장은
안정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

Tiffany Wilding
Managing Director
Economist

Andrew Balls
최고투자책임자 (CIO)
글로벌 채권

주요 시사점

세계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현재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기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와 정부 규모 축소를 위해 초기에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의 정책 변동성이 보다 안정적인 미국 전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위협:**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모두 하락하면서, 최근 몇 년간 지속돼 온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독보적 강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 **국익 우선주의 대두:** 보호무역주의적 미국 정책과 정부 지출 축소 가능성이 맞물리며,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과 인플레이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재정 지출 확대 전망으로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은 정책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완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발 불확실성은 위험자산 매도세와 변동성 확대를 불러왔습니다. 반면, 고품질 채권은 지난 1년 동안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총수익을 기록했으며, 현재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우리의 단기 투자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안정적 수익원을 추구:**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채권 수익률은 향후 5년간의 수익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채권 수익률은 매력적인 수준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채권 투자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위험자산, 특히 고평가된 자산에 대한 집중 비중을 축소할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분산 투자:** 글로벌 채권 시장의 투자 기회는 여전히 견조하며,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 **기업 크레딧 대비 자산담보금융 선호:** 우리는 공모 및 사모 시장 전반에서 기업 크레딧보다 자산담보금융(ABF)을 선호합니다.



경제 전망: 글로벌 질서 재편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노동 시장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평균보다 다소 높게 유지될 수 있지만, 대체로 중앙은행 목표 범위 내에 있습니다. 통화정책도 점진적으로 중립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새로운 변수인 미국 정책으로 이동했습니다. 변화 기조를 내세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 구조를 재편할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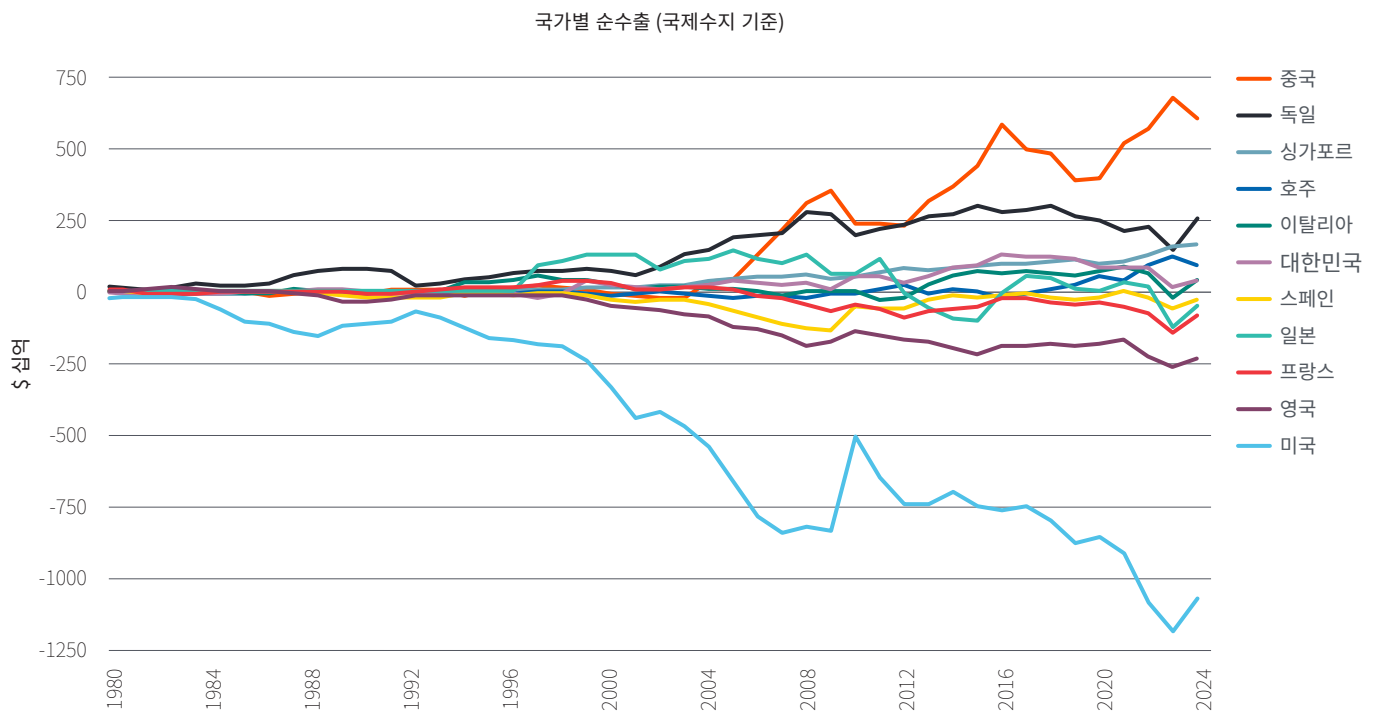
- 미국 무역적자 균형 달성 (도표 1 참고)
- 과도한 재정적자 축소
- 수십 년간 감소해 온 미국 노동계층의 소득 비중 회복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국 내 GDP에서 소비 비중을 줄이고, 무역흑자국의 제조업·저축 기여도를 낮추며, 글로벌 초과 저축 자금의 미국 자본시장 집중도를 완화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추진은 미국과 해외 모두에서 경제적·정치적·시장적 제약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향후 6~12개월 내에 단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보다 균형 잡힌 글로벌 시스템으로 이어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와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는 2025년 1월 경기주기 전망 보고서인 “확실한 불확실성”에서 이러한 혼란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은 현재 매일같이 전개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글로벌 안정의 원천이었던 미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표 1: 미국, 글로벌 무역 균형 회복 추진



출처: 세계은행, Haver Analytics, PIMCO (2024년 12월 기준)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위협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기존 국제적 역할에서 한발 물러서는 반면, 다른 국가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리더라는 오랜 전제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 년간 세계 대비 두드러졌던 미국 자본시장 초과 성과의 막바지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군사 지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혜택인 '평화 배당금'이 끝나고, 각국이 방위 예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당시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로, 미국의 세제 및 지출 정책과 함께 2025~2026년 연방 재정 적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그 범위에 따라 미국의 성장 경로를 더 넓히고, 특히 대미 무역흑자국이나 글로벌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 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정부 지출 억제, 이민 정책에서 공격적인 조치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 지출 삭감이 법제화되든 그렇지 않든, 미국 경제를 당초 예상보다 더 둔화시키고 노동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니다.

정책당국자들은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 고통은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경제 및 시장 변동성에 대한 수용 범위가 과거보다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 주식 가치 하락 등은 정치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성장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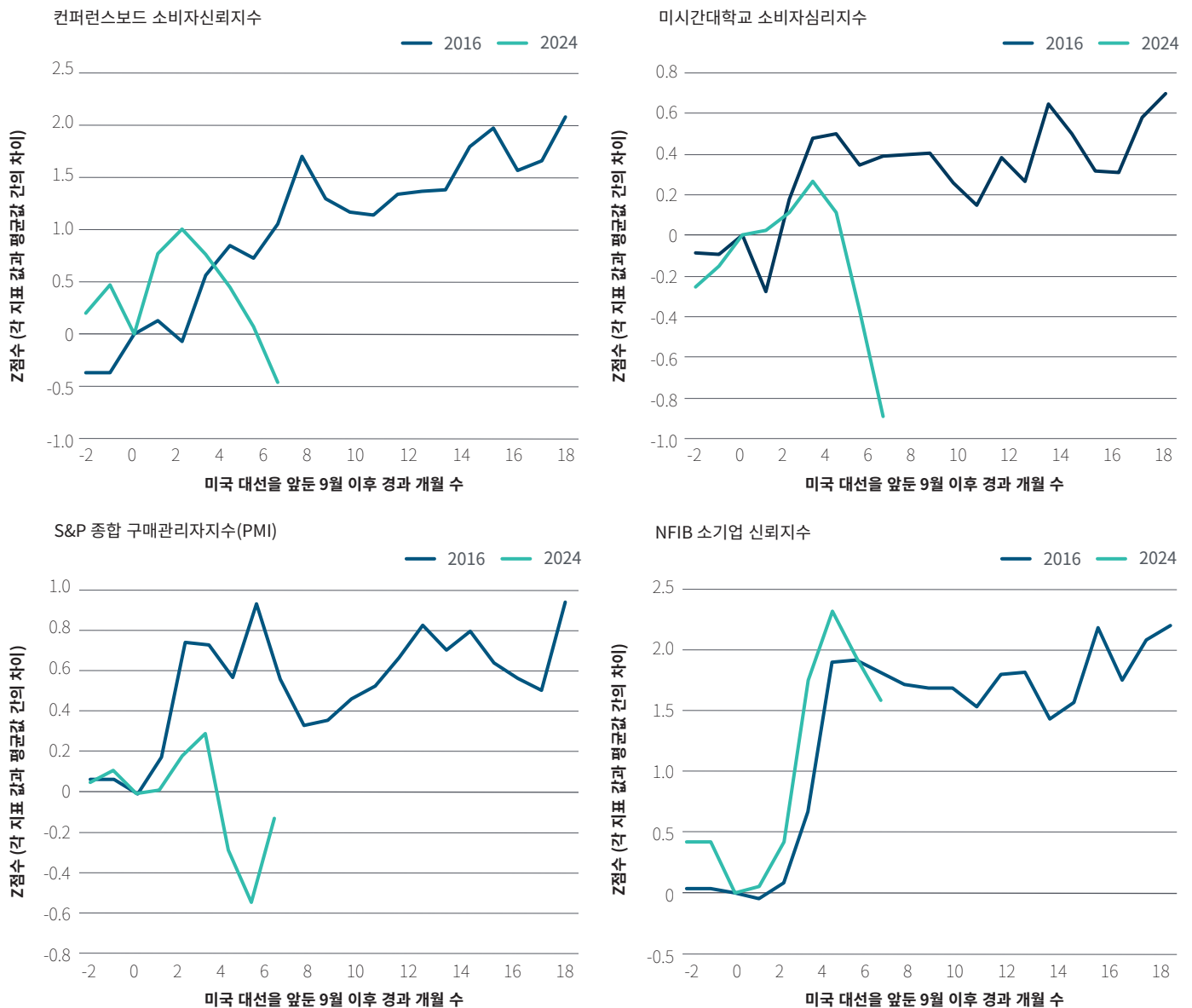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시행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발 정책 발표는 이미 소비자 및 기업 심리를 위축시켰으며, 향후 투자와 고용 결정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큼니다 (도표 2 참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관세 리스크에 직면할 경우, 투자 및 사업 확장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관세 불확실성 자체가 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과 고용 시장의 모멘텀이 보다 뚜렷하게 둔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실질 GDP가 연 2.5~3% 성장한 이후, 2025년과 2026년에는 장기 추세를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취한 조치로 인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실효 관세율은 약 7.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무역 정책 조치로 관세율이 연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가격 조정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연준의 2%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에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소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표 2: 미국 소비자 및 기업 심리지수 악화



출처: Conference Board, 미시간대학교, S&P, NFIB, Haver Analytics, PIMCO (2025년 3월 기준)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세제 정책 논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의 복잡성과 공화당의 의회 내 소수 의석 구조, 특히 하원 상황을 감안할 때, 법안이 통과되어 서명되기까지는 이르면 여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는 무역, 재정 지출, 세제 정책이 미국의 재정 정책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성장 둔화가 심화될 경우 보다 확장적인 감세로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정 부양책과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글로벌 경제 전망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주요국들의 최근 정책 조치는 기존에 비관적으로 보였던 경제 전망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국가에서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은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강한 유인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택 공급 과잉과 부채-디플레이션 사이클은 수출 의존도를 높였고, 현재는 타국의 중국 생산력 수입 기피로 인해 이 모델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및 AI 투자와 더불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경제 모델이 흔들린 이후, 국방 및 인프라 지출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지만, 재정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온 독일에 비해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외 지역의 성장 흐름이 안정적이지만 부진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역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지만, 금리에 민감한 국가들의 금융 여건 완화와 재정 확대가 일부 상쇄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시장의 완화와 임금 인플레이션 둔화는 미국 외 지역의 인플레이션을 하락세로 유지하게 할 것이며,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선진국 경제에서 추가로 50~100bp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은행은 예외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로, 우리는 연준이 올해 후반 추가로 50bp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 리스크가 서로 상반된 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요 위험은 노동 시장과 실질 GDP 성장 둔화로 인해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연준의 초기 대응이 지연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적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 기대보다 경기 침체 위험이 더 빠르게 커진다고 판단할 경우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시사점: 단순성, 안정성, 분산에 집중

현재처럼 이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거시 환경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베팅하기보다 단순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높은 불확실성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미국 주식의 초과 수익률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평가된 미국 주식에서 벗어나, 전 세계 고품질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권이 주식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하면서 위험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한 국면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초기 채권 수익률은 향후 5년간의 수익률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도표 3 참조). 2025년 3월 28일 기준, 블룸버그 미국 종합채권지수 기준 고품질 채권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4.65%, 글로벌 종합채권지수(달러 환헤지 기준) 기준으로는 4.80%입니다. 이러한 기본 수익률을 바탕으로, 액티브 운용사들은 고품질 섹터 내에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알파)을 추구할 기회를 발굴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때 요구되는 추가 수익률인 주식 위험 프리미엄은 2024년 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과 수년 내 최고 수준의 채권 수익률 때문입니다. 이후 위험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 PIMCO Perspectives 보고서, “*Where to Look When Equities Are Priced for Exceptionalism*”을 참고하십시오.)

최근 몇 달 동안 채권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서는 한 자산이 부진할 때 다른 자산이 이를 보완해줍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고품질 채권은 지난 1년간 주식과 비슷한 수준의 총수익을 기록했으며, 현재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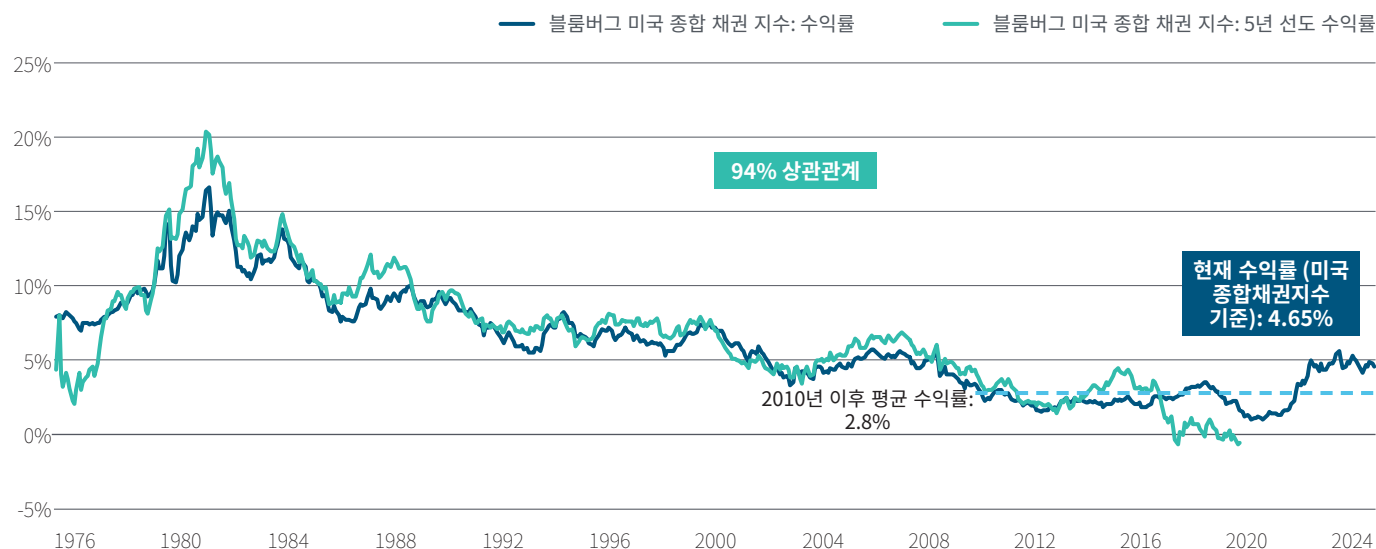
듀레이션 투자 매력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미국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비관론의 정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혼란이 지속되어 미국과 해외의 기업·소비자 신뢰를 더욱 훼손하고 경제 및 자산 가격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올해 초 위험자산 가격을 지지했던 낙관적 가정들은 보다 신중한 전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가격 하락과 함께 미국 국채와 캐나다 국채가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독일의 재정 지출 확대 계획 영향 등으로 유럽과 영국에서는 금리가 상승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도표 3: 초기 채권 수익률과 향후 5년 수익률 간 강한 상관관계

금리 vs. 5년 선행 수익률



출처: 블룸버그, PIMCO (2025년 3월 28일 기준)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을 보장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차트는 예시 목적으로만 제공하며, 그 어떤 PIMCO 상품의 과거 또는 미래 성과에 대한 지표도 아닙니다. 이율과 수익률은 블룸버그 미국 종합 채권 지수에 대한 것입니다. 비운용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미국 국채 강세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당사 예상 경기주기 범위인 3.75~4.75%의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리스크가 높아질 경우 시장이 추가적인 연준 금리 인하를 반영하며 금리 범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 국채 시장은 3월 초, 공공 지출에 대한 정치적 태도 변화로 인해 급격한 재가격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진 독일의 유로존 내 독특한 위치를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독일 외에도 유럽 전역에서 국방 지출 확대가 예상되지만, 재정 여건이 취약한 국가들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정책 대응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예상 범위를 기존 2-3%에서 2.5-3.5%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추가적인 재가격 조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금리 민감도를 나타내는 듀레이션에 대한 비중 확대를 선호합니다. 국가별로 리스크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에서, 고품질 듀레이션 자산을 통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듀레이션 비중 확대 지역으로 영국과 호주를 선호합니다. 유로존에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듀레이션 매력이 낮다고 판단하며,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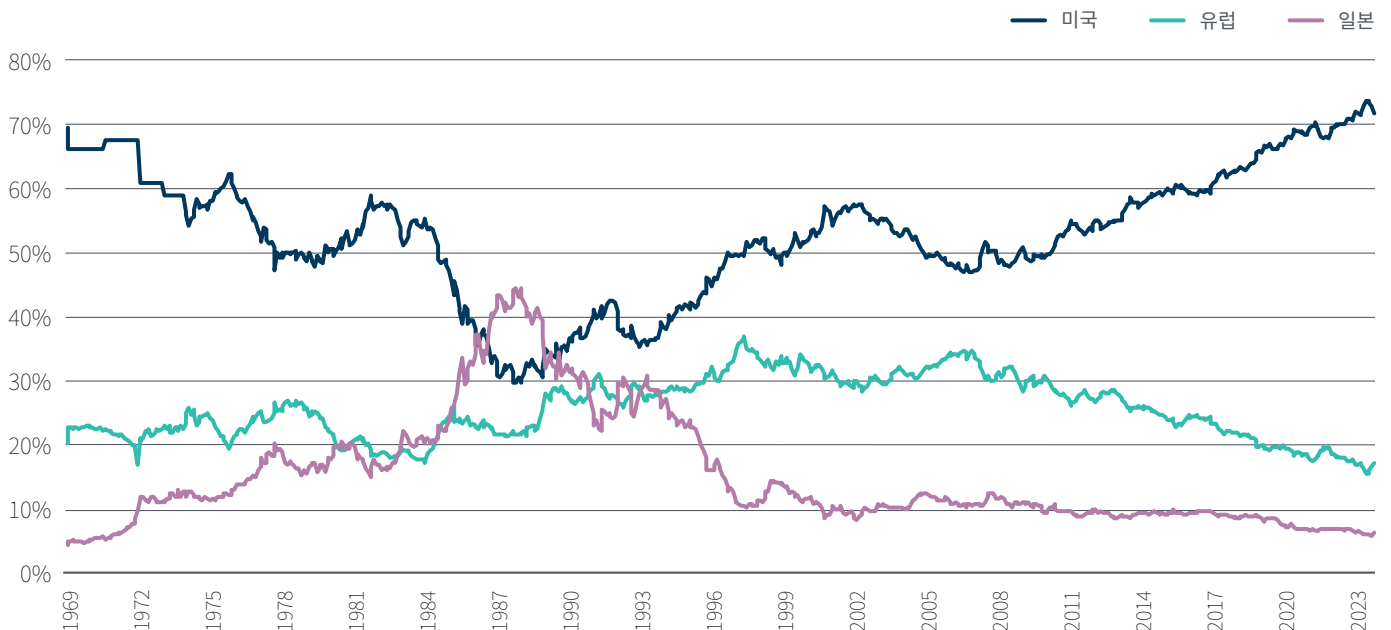
글로벌 시장 내 다양한 투자 기회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의 이면에는 외국의 초과 저축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주식 시장에서 미국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졌으며 (도표 4 참고), 이는 이제 더 취약해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히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만큼, 글로벌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고품질 듀레이션, 크레딧, 증권 시장 전반에서 글로벌 투자 기회를 중점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머징 마켓(EM)은 알파 창출 기회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제공합니다. 고품질 EM의 경우, 과거 부도율이 미국 회사채와 유사하며, 구조화 및 유동성 프리미엄도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이탈하는 자금 흐름의 수혜가 기대되는 로컬 통화 투자 기회와, 투자등급 크레딧이 점점 더 확보되고 있는 하드달러 스프레드에도 투자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예외적 강세에 대한 의문은 미 달러화의 매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동시에, 예기치 못한 관세 부과로 타국 통화가 하락하고 환율 조정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면, 미 달러화 숏 포지션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 달러화나 주식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최소화하면서, 미국 외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중히 운용된 외환 포지션을 선호합니다.

도표 4: 현재 미국은 MSCI 월드지수의 70% 이상을 차지



출처: Datastream, PIMCO 계산 기준 (2025년 3월 27일 기준)

회사채 대비 자산담보금융(ABF) 선호

우리는 기업 크레딧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스프레드가 잠재적인 하방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회사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고품질 대체 자산에서 더 큰 투자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레딧 파생상품 지수와 에이전시 MBS(모기지담보증권) 비중 확대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고품질 채권과 유동화 상품을 선호합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서 우리는 자산담보금융(ABF) 전략이 가장 유리한 투자 기회와 진입 시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원금 상환 구조, 실물 자산 담보로 구성된 매력적인 현금 흐름 특성을 가진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투자 결과의 변동성을 줄여주며, 기타 프라이빗 크레딧 자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ABF가 포트폴리오에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기업 대출 시장에서는 대출 수요 초과, 낮은 대출자 보호 장치, 변동금리 구조 등으로 인해 투자 결과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대기 자금이 거래를 추적하고 은행들이 대출 시장으로 복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모 및 프라이빗 레버리지 크레딧 시장 간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수합병(M&A) 활동이 위축되고 신규 거래 흐름이 둔화되었습니다.

결론

주식 밸류에이션과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높고 신용 스프레드가 좁은 환경에서, 고품질 채권은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수익률, 안정성, 그리고 견조한 장기 전망을 제공합니다.

당사 포럼 소개

PIMCO는 공공 및 민간 시장 전반에 걸쳐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액티브 채권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우리의 투자 프로세스는 세속적이고 주기적인 경제 포럼에 의해 고정됩니다. 일년에 네 번, 전 세계의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시장과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며 중요한 투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추세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토론에서 우리는 아이디어 교환을 극대화하고, 가정에 도전하고, 인지 편향에 대응하고, 포괄적인 통찰력을 생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동 과학 관행을 적용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중장기포럼(Secular Forum)에서 당사는 향후 3-5년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라 포트리오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트렌드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포지셔닝합니다. 다양한 생각이 더 나은 투자결과를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귀중하고, 다각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정책입안가, 투자자, 역사학자 등 저명한 초청연사를 초대합니다. 아울러 PIMCO 글로벌 자문위원회,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정치 전문가팀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1년에 3차례 개최되는 경기주기 포럼(Cyclical Forum)에서 당사는 향후 6-12개월에 대한 전망에 집중하며, 포트폴리오 포지셔닝을 좌우하는 통화 및 재정 정책,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상대가치의 잠재적 변화를 확인할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 및 신흥 시장 국가들의 비즈니스 사이클 역학관계를 분석합니다.

과거 성과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신뢰 가능한 지표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수반하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는 시장, 금리, 발행사, 크레딧, 인플레이션 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대부분의 채권과 채권 전략 가치는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긴 채권과 채권 전략은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과 채권 전략에 비해 더 민감하고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하며, 저금리 환경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조시킵니다. 채권 거래상대방 여력의 감소는 시장 유동성 감소와 가격 변동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는 환매 시 매입가에 비해 가치가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물가연동채권(ILB)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원금이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채권입니다. 물가연동채권은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미국의 물가연동채권(TIPS)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물가연동채권입니다. 모기지유동화증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은 금리변동에 민감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이들 채권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부기관 또는 민간 보증기관이 보증하지만, 해당 보증기관이 그 의무를 충족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관 및 비-기관 모기지담보부증권에 대한 언급은 미국에서 발행한 모기지를 의미합니다. 부채담보부증권(CDO), 일정비용 포트폴리오 보험(CPPI), 일정비용 채무증권(CPDO)과 같은 구조화 상품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며 적격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잡한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활용 시에는 원금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장 가치는 경제, 금융, 정치 환경(현물 및 선물 금리, 환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과 만기, 시장, 발행인의 신용 등급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 크레딧 은 비유동성 리스크를 가진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수반합니다. 사모 크레딧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 손실 리스크를 확대하는 투기성 투자 관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화 표시 및/또는 외국에 소재한 발행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환율 변동, 경제적·정치적 리스크로 인하여 더 높은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이머징 마켓에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일반 시장, 경제 및 업계 여건의 실제 상황과 그에 대한 인식 모두로 인해 그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운용 리스크는 투자운용사가 적용하는 투자기술 및 리스크 분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른 리스크이며, 전략을 운용하는데 있어 운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투자기술은 특정 정책 또는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 그룹의 신용등급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또는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는 손실 방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 추정치 및 일부 정보는 자체 리서치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일체 금융상품의 매매에 관한 자문이나, 제안이나 요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전망과 예측치에는 내재된 한계가 있으며, 실제 성과 기록과는 달리 실제 거래, 유동성 제약 조건, 수수료 및/또는 기타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래의 결과에 대한 언급은 특정 고객 포트폴리오가 달성할 추정 수익이나 결과물을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융시장 동향이나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설명은 현재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이 모든 시장 환경에서 효과가 있거나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각 투자자는 본인의 장기투자 역량,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 하락기에 투자 가능한 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전망과 전략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두개의 유가증권이 있을 때 하나의 유가증권이 다른 하나와 비교하여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통계학적 측정입니다. 듀레이션은 금리에 대한 채권의 가격 민감도를 보여주며 년으로 표시됩니다.

이 자료는 현재 매니저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배포되었으며, 투자자문이나 특정 유가증권, 전략 또는 투자상품에 대한 권유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신뢰할 만하다고 간주되지만,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는 정보 출처에서 득했습니다.

PIMCO는 일반적으로 적격 기관, 금융 중개기관 및 기관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본인의 금융 상황에 가장 적합한 투자 옵션을 판단하기 위해 본인의 금융 전문가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본 자료가 불법이거나 미인가 대상인 관할권에서 어떠한 이에 대한 제안도 되지 않습니다. | PIMCO Asia Limited 는 홍콩 증권선물거래(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상의 1,4,9 유형 규제 활동에 대하여 홍콩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PIMCO Asia Limited**는 한국 금융감독위원회에 cross-border 일임투자운용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번호 08-02-307). 자산운용 서비스 및 투자 상품은 해당 서비스 및 상품의 제공이 불허된 이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간행물의 어떠한 일부도 명백한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재생되거나 다른 출간물에서 참조될 수 없습니다. PIMCO는 미국 및 세계 각국에 등록된 Allianz Asset Management of America L.P.의 상표권입니다. ©2025, PIMCO.